

# 자동차 보험 손해율 급등 조짐 무제한 치료·과잉수리비 ‘구멍’

작년 상반기 車 손해율 2.2%p ↑  
경상환자 장기치료 주요 원인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대물배상 파트도 손해율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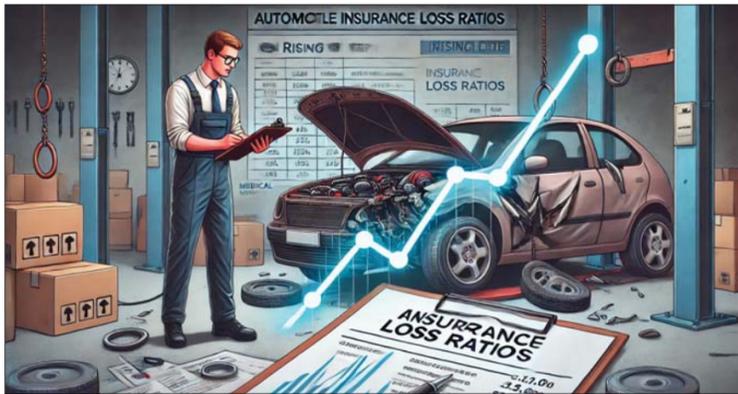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또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상환자가 기한 제한 없이 치료를 받거나 과잉청구로 수리비가 부풀려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구조적인 보험금(손해액)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p) 높아졌다. 대형 손해보험회사 7곳의 평균 손해율은 작년 7월 82.6%에서 11월 92.7%로 상승했다.

손해를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꼽힌다. 지난 2023년부터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치료할 경우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진단서를 반복 발급받으면 치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료가 길어지면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의 합의금이 커지고 일부 환자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건강보험으로 남은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환자 진료비는 지난 2018년 8300억원에서 2023년 1조29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향후 치료비는동기간 1조1300억원에서 1조



Chat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이미지.

4300억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했는데 향후치료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주로 합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경상환자가 향후치료비를 보상 받고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 상해를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수리비가 포함되는 대물배상 파트도 손해율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 보험료 증가 속도에 비해 빠른 대물배상 보험금 증가세는 손해율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주로 공임비와 부품비 증가, 수리비 과잉청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수리비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정비업계 공임비는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 등으로 2022년 4.2%, 2023년 3.8%,

2024년에는 3.5% 인상이 확정됐다. 부품비 역시 원자재값 상승분이 반영돼 꾸준히 상승 추세다.

지난 2022년 4조690억원 수준이던 대물 수리비는 2023년 약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일부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견적을 부풀리는 ‘수리비 과잉청구’ 관행이 지속되면서 공임비·부품비 인상 폭 이상으로 보험금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난 2018년 4조6000억원에서 2023년 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과보험료는 동기간 연평균 0.8% 증가에 그쳤다.

전용식 선임연구원은 “대물배상 보험금의 경우 근거가 취약한 공임 결정 방식, 수리비 과잉청구 억제제를 위해 도입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낮은 실효성 등 제도적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서울 금고 ‘양천 금빛’·‘종로 중앙’ 4파전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3파전 7곳 2파전 42곳 등 49곳 경합

새마을금고가 ‘제1회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는 가운데 서울 일부 금고에선 4명이 몰리면서 각축전이 예상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경합이 이뤄지는 곳은 총 49곳이다.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지원한 곳은 총 7 곳이며, 42곳은 2명이 이사장 자리를 경쟁한다. 서울지역 새마을금고 193곳 중 144곳은 단일 후보가 출마하면서 자동으로 이사장에 당선된다.

가장 치열한 양상을 나타내는 곳은 양천구 금빛새마을금고와 종로구 종로중앙새마을금고다. 각각 이사장 후보로 4명씩 지원했다. 이번 동시 선거에서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금고는 반드시 직선제를 치뤄야한다. 2곳 모두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이어서 선거일(3월5일)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빛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3826억원이다. 이 중 현금·예치금과 대출채권의 비중은 95.5%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포스터.

/새마을금고중앙회

각각 1518억원, 2134억원씩 보유하고 있다. 이어 임직원은 임원 11명과 직원 24명으로 중견 규모 금고로 분류된다.

오보근 금빛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연임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이만중 전 금빛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문병상 전 금빛새마을금고 감사,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의 대결이 성사된 셈이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빛새마을금고는 과거 대의원제를 채택할 때부터 수많은 지원자들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라고 말했다.

종로중앙새마을금고는 박창훈 이사장이 3연임을 모두 마치면서 새로운 인

물이 도전장을 던진다. 김산해 전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이사사와 이태랑 전 창신2동새마을금고이사장, 이재광 전 종로구의원, 이용희 전 종로중앙새마을금고 전무 등이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태랑 후보자는 1942년생으로 올해 출사표를 던진 서울지역 후보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반면 최용득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57세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조182억원으로 대형 금고에 속한다. 현금·예치금은 2307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22.6%다. 이어 대출채권 잔액은 7617억원으로 74.8%를 차지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LH, 올해 공사·용역발주 19조 ‘역대최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비중 69%  
상반기 누적 59% 수준 발주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해 발주 실적 17조8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유형별로는 ▲공사 17조8000억원(787건) ▲용역 1조3000억원(663건) 등이다.

이번 발주계획에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9% (약 1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남양주왕왕속1,2(9969억원) ▲인천계양(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투자집행 시기도 앞당긴다. LH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에는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약 12조6000억원(전체 65% 수준)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약 1조2000억원(전체 용역 발주의 90%)을 편성했다.

LH는 역대 최대규모 발주인 만큼 발주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주요 공사 일정은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세 제공지하는 등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우리은행, ‘이상징후 검사 시스템’ 도입

연소득 허위 입력 등 데이터 분석  
내부통제·선제적 금융 사고 예방

우리은행은 24일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징후 검사시스템)’를 오픈했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에 대해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은 ▲대출 취급시 연소득 허위 입력 ▲허위 자금용도 증빙자료 제출 ▲고객 몰래 정기예금 해지 후 편취 등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나 사고 취약 유형에 대해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마련됐다.

행동 패턴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검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탐지되며,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영업점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 이후 특정한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패턴 분석 및 시나리오 생성 ▲내부통제 DB(Data Base) 구축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 등을 개발했으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위험 시나리오 기반 최신 데이터를 추출해 검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새롭게 마련된 검사시스템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시스템을 현업에 도입하게 됐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

## 카드 News

### KB국민·롯데카드, 캐시백·할인 행사

KB국민카드는 봄방학을 맞아 홍콩과 중국에서 결제 시 포인트리와 캐시백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홍콩에서 KB국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50%를 포인트리로 돌려준다. 행사 종료 후 홍콩에서 원화환산금액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 포인트리를 지급하며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 포인트리를 준다.

오는 4월 9일까지 중국에서 KB국민 유니온페이카드를 이용하면 캐시백을 제공한다. 행사 종료 후 중국에서 원화환산금액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최대 5만원까지 적용한다.

롯데카드는 발견탭 내 ‘새 학기’, ‘교육’ 카테고리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9일까지 디지리카업 평샵에서 ▲노트북·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학생가구 ▲디지털 액세서리 등을 최대 80% 할인한다. 일부 상품은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10% 추가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도서와 스테디카페 이용권, 의류, 화장품 등을 할인해 주는 ‘TOUCH(터치)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선착순 5만명에게 온라인 서점 ‘에스24’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김정산 기자